로컬플러스

군산 먹거리 장터 벚꽃 관광객 몰려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먹거리 장터가 절정에 이른 벚꽃을 보기위한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군산시에 따르면 월명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먹거리 장터에 9일까지 20여만 명이 벚꽃관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벚꽃과 먹거리 하나로 수십만에 이르는 상춘객을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시민에게 문화욕구 충족과 함께 관광객 증가세로 월명종합경기장의 벚꽃이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했다.

올해 먹거리 장터에서는 13개 사회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전통음식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용안면 벚꽃제 · 풍년기원제

벚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제45회 벚꽃제 및 풍년기원제가 지난 7일 개최됐다.

용안면 풍년기원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전종석)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의회 김영배 의장,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장, 북익산농협 장복식 조합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들과 용안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무학풍물단의 풍물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함께 한해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제례,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 순으로 진행됐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홍보 앞치마' 제작 · 배부

다시 오고 싶은 군산 만들기 홍보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부채형태의 홍보용 팸플릿 '꿈길따라 맛길따라' 손안에 지도에 이어 '군산홍보 앞치마'를 제작해 군산시내 모범음식점 및 맛집에 배부한다.

시는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 및 전북도민체전 등 대규모 행사 손님맞이 일환으로 친절?질서?청결 및 대규모 행사 홍보문구가 담긴 앞치마 500여개를 제작했다.

시는 음식점 직원들이 앞치마를 착용하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실시하면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와 더불어 방문객에게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군산시를 찾는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 및 접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어린이 생태놀이터' 이달말 준공

군산시, 5억원 투입 노후 공원시설 친환경 재료 사용 정비

군산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생태놀이터'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군산시 지곡동 564-1번지 일원에 지난해 10월 착공한 이 사업에는 총 5억원이 투입됐다. 꿈을 담은 놀이터란 의미로 '꿈담음 생태놀이터'로 이름 지어진 놀이터 조성사업은 노후된 기존 공원시설을 정비해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며 힐링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놀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나무·흙과 같은 친환경 재료만을 사용했고 내부구조는 군산의 특징인 새를 형상화했다.

주요 시설로는 통과놀이대, 언덕미끄럼틀, 나무다리놓기, 네트놀이대, 자갈밭, 세족장 등 나무와 흙 등 자연소재의 놀이요소를 도입해 어린이가 자연과 어우러져 놀 수 있는 시설환경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기존 공원시설을 둘러쌓고 있던 울타리를 모두 제거해 사방에서 훤히 보며 걸을 수 있는 잔디로를 조성하고, 그늘막 쉼터를 설치해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과 나무와 초화류 등을 식재해 푸른 공간으로 조성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놀이터가 준공되면 어린이가 꿈을 담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정서 함양 및 창의성이 발달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아이들과 지역주민에게 힐링과 휴식공간이 제공해 행복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경찰 교통기반시설구축 공모사업 선정

국비 17억원 확보…첨단교통관리 · 방범 등 다양한 도시관리시스템 도입

군산시와 군산경찰서가 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된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군산시는 국비 17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도심부 교통기반시설 구축사업'은 인구 20만이상의 5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심부 첨단교통관리와 방범·재난관리를 위한 다양한 도시관리시스템 도입·운용을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교통정보센터 CCTV, 자가통신망, 소방긴급차량출동시스템 구축 등 교통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노후화된 도로소통용 CCTV를 전면 교체하고 미장도시개발지구 신도시 개발 확정에 따른 첨단교통시설물과 광자가망 추가 구축,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등 센터시스템을 보강해 군산시 예산절감에 톡톡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교통정보센터는 2008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국비지원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4차례 선정되어 국비 85억 원을 확보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확장 추진한 바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LED 야광밴드 배부로 교통사고 예방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대장 경감 김용대)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고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으로 LED 야광밴드를 제작, 배부했다.

그간 중앙지구대는 주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직접 찾아간다는 의지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상가·아파트·경로당 2개소를 방문 홍보하고, 〈1-1-2 홍보제〉를 실시하등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시도하였으며 어렵고 가까이 다가오기 힘들다고 느끼는 주민들에게 경찰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시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들어 중앙지구대 관내에서 총 2건의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2건 모두 보행자 사망사고인 것으로, 이에 중앙지구대에서는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일환으로, LED 불빛이 반짝반짝 들어오는 손목형 밴드를 제작하여 관내 교통사망사고 발생장소 및 보행자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진출, 배부하고 112순찰시에도 무단횡단을 하거나, 밝은 옷을 입지 않고 보행하는 주민들을 보면 직접 손목에 채워주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동시, 안전보행방법과 보이스피싱·4대 악근절 예방법 및 대처법 등을 알리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등 주민들의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대 중앙지구대장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 도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우리 부모님이나 아들·딸들도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 성료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세상 구현을 위한 "제13회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랑의 거북이 전국 마라톤대회는 지난 8일 러블리 투어를 시작으로 9일 장애인 문화엑스포와 마라톤까지 이틀간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나 되어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6,000여명의 참여로 이뤄졌다.

가장 느리게 달린 선수가 대상을 받는 이번 대회는 중앙체육공원에서 출발해 남성총동창회관, 신공단주유소, 2공단사거리, LG화학, 신흥정수장을 거쳐 중앙체육공원으로 돌아오는 6.5km를 뛰었다. 전년도 참가 신청이 많았던 장애체험마라톤은 비장애인이 장애체험을 하며 6.5km를 달려 오는 것으로 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줬다.

특히 이번 대회는 자원봉사의 참여가 눈에 띄었다. 코레일 전북본부 자원봉사단 등 민·관·군 봉사단 1천여명이 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했으며, 매년 무료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참가비를 대신하여 참가자들에게 한웅큼의 쌀을 모으는 "사랑의 좀도리 단지"가 운영됐다. 모아진 쌀은 우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전해져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김양원 군산 부시장 인력개발원 방문 일자리창출 모색

김양원 군산시 부시장은 지난 8일 기업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전북인력개발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국내외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군산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김양원 부시장은 전북인력개발원 관계자들을 만나 청년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했다.

또한 시와 전북인력개발원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군산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 노력을 약속했으며,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적극적 파트너십을 희망했다.

이에 김양원 부시장은 "관내 고용유관기관들과 연계한 폭넓은 정보 공유 및 군산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항 직원 새만금마라톤서 컨테이너터미널 홍보

군산시 항만물류과와 군산GCT, 동영해운, 로릭코리아 등 군산항 관련 직원들이 새만금국제마라톤을 통해 군산GCT(군산 컨테이너터미널)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10일 개최된 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전북 유일의 무역관문 군산 컨테이너터미널'이 새겨진 홍보배판을 붙이고 5km 코스 마라톤을 함께 뛰며 대회 참여자들에게 군산GCT를 홍보했다.

이날 마라톤은 TV에 생중계되어 군산GCT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홍보활동은 군산시 항만물류과에서 군산GCT를 국제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자는 아이디어를 세워 관련회사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등 마라톤을 뛰며 홍보하는 이벤트를 계획했다.

한편 군산GCT는 2004년 7월에 설립돼 군산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CJ대한통운, 세방, 선광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부두운영 회사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제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게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젼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